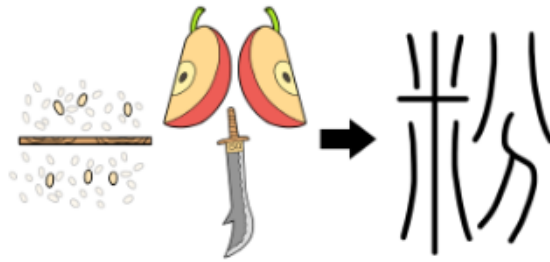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粉

가루
분(·)

粉자는 '가루'나 '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粉자는 米(쌀 미)자와 分(나눌 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分자는 칼로 사물을 반으로 나눈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分자에 米자를 결합한 粉자는 '쌀을 나누다' 즉 '쌀을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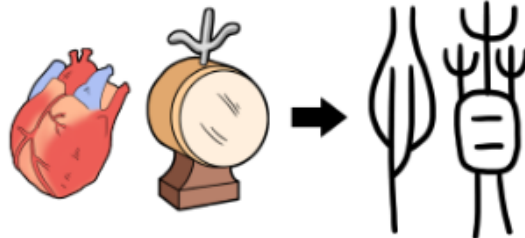
粉

소전

粉

해서

회의문자 ①



憤

분할 분:

憤자는 '분하다'나 '성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憤자는 心(마음 심)자와 贗(클 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贗자는 큰북을 그린 것으로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贗자에는 '끓어오르다'나 '성내다'라는 뜻도 있는데, 예전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북소리를 울려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었기 때문이다. 憤자는 이렇게 '끓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贗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북소리를 들은 병사들의 사기와 분노가 극에 달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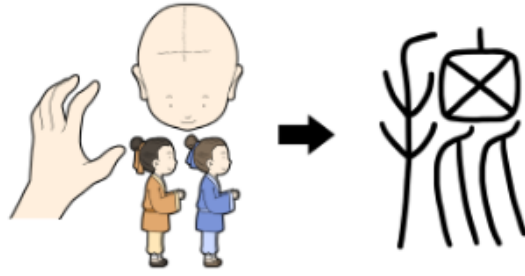
憤

소전

憤

해서

형성문자①



批

비평할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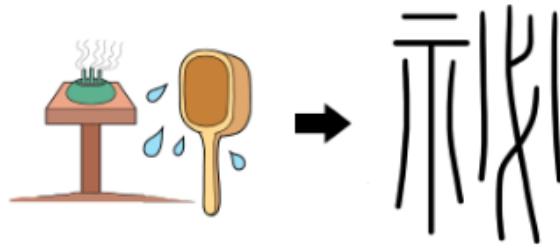
批자는 '비평하다'나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批자는 手(손 수)자와 比(비교할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比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다. 비평이란 비교해서 바로 잡는 것이니 手자와 比자의 조합은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래 '비평하다'라는 뜻은 '(손으로)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批자의 소전을 보면 手자와 𢇛(손상할 피)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손으로 때려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예서와 해서에서부터는 𠂔(정수리 신)자가 생략되면서 비교해 바로잡는다는 뜻의 批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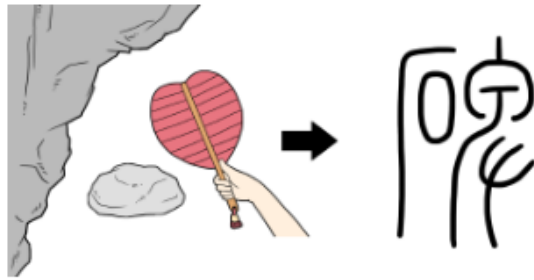
숨길 비:

祕자는 '숨기다'나 '신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祕자는 示(보일 시)자와 必(반드시 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必자는 두레박 주위로 물이 튀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祕자는 본래 "신의 뜻은 너무나도 오묘하여 쉽게 알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禾(벼 화)자가 들어간 秘(숨길 비)자가만 들어지면서, "집안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감추어야 한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祕자는 祕자의 속자(俗字)였지만 지금은 두 글자 모두 모두 '숨기다'나 '신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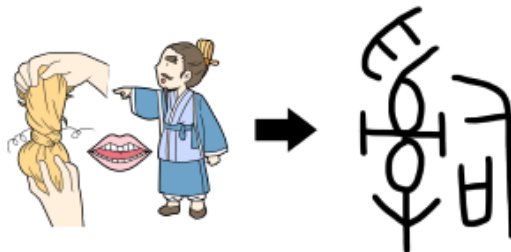
비석 비

碑자는 '비석'이나 '돌기둥', '비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碑자는 石(돌 석)자와 卑(낮을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卑자는 '비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보통 비석이라고 하면 무덤 앞에 세워놓는 묘비(墓碑)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비석에 새겨 기록해 놓았다. 후대에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종의 기념비를 뜻했던 글자가 바로 碑자이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辭

말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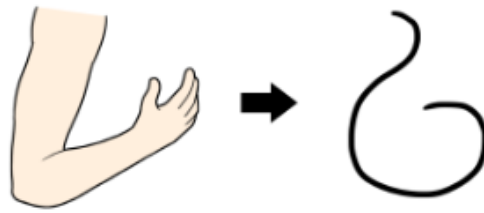
辭자는 '말씀'이나 '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辭자는 실타래를 손으로 엮고 있는 모습을 그린 讠(어지러울 난)자와 司(매울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讠자와 司(말을 사)자가 결합한 辭(말씀 사)자가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司자는 손을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금문에서는 이렇게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司자에 讠자를 결합한 辭자가 '(높은 분의)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관료들은 죄인의 죄를 묻고 따져 심판하는 역할도 했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죄인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辭자가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私

사사(私
事)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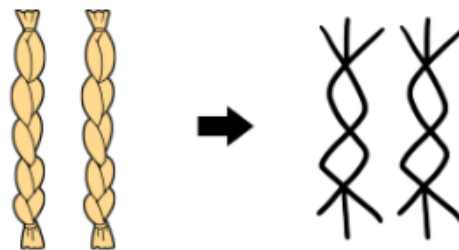
私자는 '사사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사사롭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私자는 禾(벼 화)자와 厶(사사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厶자는 팔을 안으로 굽힌 乙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사롭다'라는 뜻이 있다. 팔을 안으로 굽히는 행위가 물건을 독차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厶자가 사사로움을 뜻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禾(벼 화)자가 더해졌는데, 이것은 곡식의 소유주가 나 자신임을 뜻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의 私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나 이기적임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絲

실 사

絲자는 '실'이나 '가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絲자는 系(가는 실 사)자가 겹쳐진 모습이다. 系자는 실타래가 묶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系자가 부수자로 활용되면서 지금은 系자를 겹쳐 그린 絲자가 '실'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絲자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 '실'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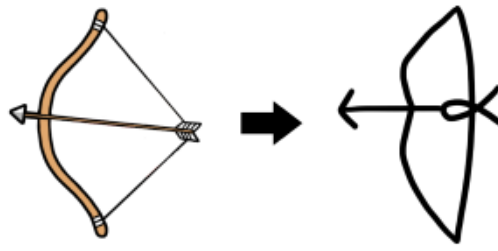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射

쏘 사(·)

射자는 '쏘다'나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射자는 身(몸 신)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射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갑골문에서는 활과 화살이 함께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又(또 우)자가 더해졌다가 한나라 때의 예서에서는 활과 화살이 身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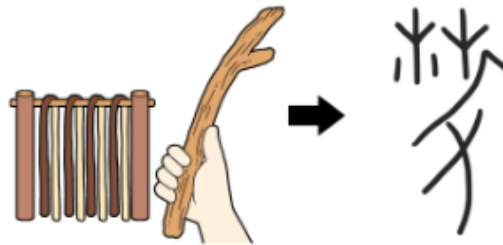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散

흩을 산:

散자는 '흩어지다'나 '헤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散자는 𦰩(흩어지다 산)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𦰩자는 뿔뿔이로 '마'를 두드려 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 '흩어지다'라는 뜻은 𦰩자가 먼저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肉(고기)자가 더해진 𦰩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고기를 두드려 연하게 만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제사 때 올리는 산적(散炙)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散자는 이렇게 고기를 다지는 모습에서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지만 흩어진다는 것은 헤어짐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후에 '헤어지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